

아시안컵 오늘 말레이와 경기... 조 1위냐 2위냐



16강 진출 확정... 잊었던 '승리 본능' 회복 급선무 손흥민 등 7명 옐로카드 누적... 선수 기용 고민도

'일본? 사우디? 승리 본능부터 되찾아라!' 울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5일 오후 8시 30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 자눌 스타디움에서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사실상 16강 진출은 확정지은 상태다. 조별리그 1~2차전까지 요르단이나 E조 1위(승점 4·1승 1무·골득실 +2), 한국이 2위(승점 4·1승 1무·골득실 +2), 바레인인 3위(승점 3·1승 1패), 말레이시아가 4위(승점 0·2패)다. 24개국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는 이번 대회에서는 각 조 1~2위에 더해 3위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도 16강에 오르는데, 한국은 이미 조 3위 이상의 성적은 확보했다. 3차전에서 결정되는 것은 16강 대진의 '어느 자리'로 가느냐다. 만약 한국이 E조 3위를 하게 되면 A조 1위이자 개최국인 카타르나 D조에서 일본에 2-1 꺾고 승리를 거두고 1위를 확정할 이라크를 만나게 된다. 한국이 E조 2위를 하면 F조 1위와 16강에서 만나는데,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E조 1위로 조별리그를 마친다면 D조 2위인 일본과 16강에서 한일전을 펼치게 된다. 클린스만호가 요르단과 2차전에서 보여준 형편 없는 경기력을 고려하면, 16강에서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 4개 팀 모두 버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최근 한국에 우세한 모습을

을 보여왔다. 사우디는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이탈리아 대표팀을 지휘했던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에 조별리그 첫전에서 유일한 패배를 안기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홈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카타르와 이번 대회 최대 다크호스로 인정받는 이라크도 만만치 않다. 카타르의 측면 공격수 아크람 아피프와 이라크 스트라이커 아이멘 후세인은 각각 3골로 대회 득점 랭킹 공동 선두다. 어느 자리로 가든 가시밭길이다. 요르단전과 2차전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인 클린스만호는 말레이시아전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승리 본능'을 스스로 깨워야 한다. E조 최약체로 꼽히는 말레이시아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130위로 한국(23위)보다 무려 107계단이나 낮다.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26승 12무 8패로 크게 앞선다.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패한 건 1985년 3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치른 1986 멕시코 월드컵 예선 경기(0-1패)가 마지막으로, 39년 전 일이다. 말레이시아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을 지낸 김판곤 감독이 지난 2022년부터 지휘하고 있다. 클린스만호로서는 다득점 대승을 거둬야 요르단 전 출전으로 차갑게 식은 팬심을 돌려놓을 수 있을 거로 보인다. 이번 경기에서는 '옐로카드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은 앞선 2경기에서 옐로카드를 무려 7장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최종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를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대표팀 손흥민, 김진수 등 선수들이 공식 훈련을 하고 있다.

나 받았다. 자칫하면 주전 선수들을 잃은 채 16강전에 임해야 할 수도 있다. 바레인과의 1차전에서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규성(미트윌란), 박용우(알아인), 이기재(수원 삼성) 등 5명이 경고를 받았고, 요르단전에서는 황인범(즈베즈다), 오현규(셀틱)까지 옐로카드를 추가했다. 조별리그부터 8경기에서 경고 기록이 누적되고, 4강에서 해소된다. 조별리그부터 8경기 경고 2장이 누적된 선수는 다음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첫 16강 진출' 가자지구 전란에 '위로'



C조 최종전서 홍콩에 3-0 대승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 무대에 오른 팔레스타인 선수들이 전란을 겪는 가자지구를 위로를 받는 성취를 이뤘다고 기뻐했다. 팔레스타인은 24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홍콩과의 2023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3차전 최종전에서 3-0 대승을 거뒀다. 이는 팔레스타인이 아시안컵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다. 이 승리로 승점 4(골 득실 0)를 쌓은 팔레스타인은 조 3위로 16강 진출권을 따냈다. 조 3위 6개 팀 중 상위 네 팀 안에 들어 조 1, 2위 팀들을 제외하고 남은 4장의 티켓 중 하나를 받았다. 2015년(3패), 2019년(2무 1패)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실패를 딛고 세 번째로 출전한 대회에서 16강 무대를 밟았다. 축구 대표팀의 역사적 성취는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소식이다. 특히 선수들은 전란에 휩싸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언급하며 16강 진출의 의의를 강조했다. AP통신의 영상 계열사 APTN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태어난 모하메드 살레는 경기 후 "내 기분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다"며 "가자지구 주민들이 우리 경기를 보고 행복해한다"고 말했다. 주장 무사브 알바타르도 "우리가 정신력을 보인 덕에 원하는 성취를 이뤘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며 "우리를 응원해준 사람들, 선수들에게 고맙다. 환대해준 개최국 카타르도 고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남대 펜싱부, 전국 선수권대회 여자사브르단체전 준우승

호남대학교 펜싱부가 2024 전국남녀중목별 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여자사브르단체전에서 2위에 올랐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올해의 첫 대회로 중학교팀부터 일반부팀까지 모두 참여하는 오픈대회로 진행됐다. 호남대 여자사브르 단체전팀(김유민·정연수·임서진·최예니)은 16강전에서 양구군청을 45-44로 이겼고, 8강전에서 서울시청을 45-42 꺾었다. 이들은 4강전에서 인천중구청을 45-40으로 물리치며 결승에 올랐지만 대전시청과의 결승전에서 45-33으로 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펜싱 광주시 대표로 출전해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펜싱부를 이끌고 있는 모효정 감독은 "전국체육대회 입상 이후 우리 선수들의 자신감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회를 앞두고 강준에 들었던 동계훈련의 성과가 나타난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 남은 동계훈련을 잘 관리해 올 한해 지



호남대 여자사브르 단체전팀 김유민(사진 왼쪽부터), 정연수, 임서진, 최예니가 지난 16~22일 열린 2024 전국남녀중목별 오픈펜싱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호남대학교 제공>

리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11년 창단한 호남대 펜싱팀은 최다회(11학년·리우올림픽 대표), 권민아(12학년·국가대표 상비군), 정성현(15학년·국가대표 상비군), 박다운(16학년·청소년 국가대표), 양예솔(17학년·국가대표 상비군), 김정미(19학년·국가대표) 등을 배출해왔다. /김진아 기자 jinggi@

'조코비치 vs 신네르' 호주오픈 4강 '신·구 라이벌' 격돌

시즌 첫 메이저 테니스대회인 호주오픈 남자 단식 4강에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안니코 신네르(4위·이탈리아)가 맞대결한다. 2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조코비치와 신네르의 경기는 결승전 못지않게 팬들의 관심을 끄는 '빅 매치'다. 커리어로만 놓고 보면 조코비치가 압도적이다. 그는 호주오픈에서만 10번 우승했고, 최근 호주오픈 33연승을 질주 중이다. 조코비치와 상대 전적은 2승 4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말 조코비치를 상대로 2승을 거둬 자신감이 한껏 올라왔다. 지난해 11월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파이널즈 조별리그에서 2-1(7-5 6-7(5-7) 7-6(7-2))로 이겼고, 같은 달 데이비스컵에서도 신네르가 2-1(6-2 2-6 7-5)로 승리했다. 조코비치는 신네르와 4강에서 이기면 호주오픈 단식 최다 연승 신기록을 세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시민덕희
2관	외계+인 2부, 클럽 제로
3관	노랑: 죽음의 바다, 영화 스미코구라시 - 튀어 나오는 그림책과 비밀의 아이
4관	위시
5관	시민덕희
6관	외계+인 2부
9관	서울의 봄

7관 싸여들: 신차원! 핑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 날아라 수제김밥-, 김위에 김대중, 넥스트 골 원즈

8관 싸여들: 도그맨, 레트리뷰션, 스템의 문단속: 다녀왔어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마리퀴리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퀴리

일시 :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 18: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정승의 개인전

GAC 공모전시 정승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즐거움

문화산책

외계+인 2부

1월 10일 극장 개봉